



감각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

빅토르 E. 프랑클의 저서 '의미에의 의지' 가운데 '인문주의적 심리학'을 다룬 장에는 인간의 중요 현상에 관한 흥미로운 구절이 있다. 프랑클에 따르면 인간은 때때로 어떤 대상이 나타날 때 본능적 공격성을 발휘할 뿐 아니라 다른 동물과 달리 내용과 목표를 지향하는 '의도적' 존재다. 그 내용과 목표가 파괴적일 때조차 사람은 '의도적' 존재 그 자체다. 이에 대해 프랑클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인간적 차원에서 나는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는 공격과 달리, 내가 비위하는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거당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내가 비위하는 누군가에게도 향해 있다(그 사람 자체를 비위하지 않고 단지 그의 어떤 점이 싫은 것만으로도 그를 비위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존재하는 싫은 점을 실제화하고 그 사람을 그 싫은 점까 동일시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점을 제거할 수도 있을 그 사람의 능력을 차단한다).

관호 안의 소박한 문장에 중요한 본질이 드러나 있다. 화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물학이든 심리학이든 공격성의 원인에 관한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인간의 중요 현상을 걱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중요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확신을 갖고 말해야 한다. 또 그 사람의 행동이 싫다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의 '행동'이 싫고, 그 행동이 혐오스럽고, 그 행동이 비난받아야 한다. 그 사람의 잠재력으로 보면 그 행동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으며 개선될 수 있다. 정신이 내재한 사람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행동양식 대신 사람을 미워할 때 갈등은 점점 커진다.' 이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기본공식이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점증시킬 만한 그런 지뢰가 어떤 매체에 묻혀 있는지 자신의 인생을 당장 탐지해보자. 조금만 건드리도 곧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가? 주위의 아는 사람 가운데 내 주관적인 생각에 비추어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한다고 이겨지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이미 '사람 자체를' 유죄라고 판결한 사람들, 말하자면 그의 행동 이상의 것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린 사람들을 표시해보자. 그가 한 부정적인 행동과 동일시된 사람들은 이제 내게 단순히 갈등 상대자를 넘어서 '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

리가 '적'이 된 사람들의 현실을 오인하는 비극이 시작된다. 감각을 통한 우리의 인지는 왜곡되어 스스로도 거의 들여다볼 수 없게 된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형광펜으로 이름을 표시해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엄청나게 실망한다.

정치학자 프리드리히 글라슬은 저서 「갈등에서 자신을 구하는 법」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이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과정을 9단계로 설명했다. 이 9단계는 어떤 사람의 심은 점을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순간 그 행동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차단된다고 말한 프랑클의 주장이 얼마나 옳은지를 분명하게 밝혀준다. 간단히 말하면 적은 우리가 적이라고 인지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글라슬에 따르면 처음 두 단계는 사실상 상대를 향한 마음이 굳어지는 과정과 그에 상응해서 논쟁적인 말들이 오가는 과정에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야 '적'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일어난다. 체제, 위협적 몸짓, 이중적 의미의 제안, 모욕과 점차 강해지는 파괴 공격이 뒤섞여 9단계에 다다른다. 글라슬은 이 마지막 단계에 '심연으로 동반 추락'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아주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다.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자신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적이 망하기만 하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게 된다. 적의 몰락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끔찍한 몰락의 사다리가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해답은 자신의 인지가 왜곡되는 현상을 파악하는 의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의 왜곡은 앞서 말했듯이 갈등 상대가 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그 사람 자체와 구분하지 못해서 그를 '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시작된다. 글라슬도 그때 정

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선택적으로 관심을 보인다. 즉, 상대의 행동이나 특성 중에 위협적 요소가 협동적 요소보다 더 잘 보인다. 상대가 저런 거슬리는 특성에 대해서는 크고 무겁게 평가하고 반대로 좋아할 만한 특성은 간과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 '근시안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즉, 논쟁의 장기적 결과 또는 논쟁 진행에 있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장기적 결과에 대해 점점 의식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 사건에 대한 이해나 기억을 각각의 '적의 이미지'에 따라 왜곡한다. 복잡한 사건들을 단순한 결과로 해석하고 흑백논리의 틀로 정리해 기억한다.

글라슬은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인지가 심하게 변색되고 흐려지고 왜곡된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런 이미지들이 점점 더 확고하게 새겨지고 크게 변형된다는 점도 문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논쟁 당사자들 사이에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들이 끼어들어 진정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로막는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 자체와 혼동하는 것이 '원죄'다. 부정적 행동은 거부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거부하게 된다. 이러한 '과오'에서 '적의 이미지'로 발전하고 이 이미지는 차츰 '진정한 인격'을 보는 시선을 차단한다. 이렇게 작동되는 기제만이 인류가 그토록 피를 부르는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행위를 설명해준다. 우리가 피를 흘리는 '사람들의 인격'을 볼 수 있다면 끔찍한 유희 사태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다치게 할, 적어도 끔찍할 정도로 다치게 할 마음은 갖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는 성스러운 요소도 있다. 하지만 오직 '적', 악마, 악한들만 보기 때문에 생명권도 살 가치도 없는 사물처럼 하찮은 사람만 보기 때문에 유희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 또는 두 정당,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글라슬의 분류에 따라 이미 2단계까지 진행했다고 상상해보자. 그 뒤에 이어질 '행동'은 절대 칭찬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를 다치게 할 행동인 것이 뻔하다. 양측이 각각 이제 서로 대화와 협력은 한계에 부딪혔고 더 이상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상대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초래한 잘못된 결과를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상대의 행동은 나쁘다고 짚아내리면서 상대를 처벌할 마땅한 조치를 찾아내서 실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다. 하지만 '한쪽 발만 들이서는 안 된다'는 경구가 이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다. 그래서 상대편의 말을 들어보면 대개 완전히 거꾸로

다. 즉, 한 사람이 나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조치라고 한 행동을 상대는 도발적인 공격으로 해석한다. 처벌로는 아직 아무도 '정신 차리게' 만들지 못했다. 그저 지금까지 아이들을 교육할 때나 해온 말일 뿐, 한 번도 사람들에게 순순히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이제 논쟁하는 두 사람의 갈등이 점증하는 두 번째 단계 있다고 가정하고 이 논쟁이 3단계로 접어들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한껏 발휘해 첫 번째 단계로까지 거슬러갈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원칙적으로 나는 그들을 다시 협력관계로 돌리려고 도모하기 전에 시급히 개별상담을 하라고 충고하겠다. 하지만 개별상담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적'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기껏해야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거나 보는 사람들이 그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오인하고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그런 그들의 마음의 눈에 안경을 씌워 교정해줘야 한다. 그래서 앞의 두 단계에 이르는 동안 자신들이 만났었던 현실에 대한 허상이 아닌 그 허상의 신체물 계대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허상은 다음과 같이 교정할 수 있다.

- 믿어낸 좋은 믿을 받게 비춰 드리냄으로써 선택적인 관심은 교정한다.
- 포괄적인 미래상을 갈고닦아 윤을 넘으로써 근시안적 인지를 교정한다.